

역사와 나 ~베이징과의 기연(奇緣)과 기연(機緣)

아오야마 하루토시 (青山治世)

원문은 일본어. 번역: 최고은

1976년 9월 9일, 현대 중국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 마오쩌둥이 베이징에서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 한달 반 정도 전인 7월 25일에 기후현 오가키시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4년 전 베이징을 방문하여 일중 국교 정상화를 이룩한 다나카 가쿠에이가 록히드 사건으로 체포된 건 이틀 뒤인 7월 27일이다. 다음에 소개할 경위로, 훗날 나는 중국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자기소개를 할 때 “베이징은 제 2의 고향입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다. 연구뿐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베이징과 묘한 인연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

요즘은 잘 꺼내지 않지만, 십수 년 전까지만 해도 '80 후後(바링허우)'라고 불리는 1980년 이후에 태어난 중국인과 처음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면 종종 '마오쩌둥 주석과 1개월 반쯤 같은 시대를 살았다'는 말로 말문을 열었다. 마오쩌둥은 해외 유학 경험이 없지만, 마오에 이어 이인자였던 저우언라이가 스무 살 전후에 일본에 유학했던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국교정상화 당시 다나카 가쿠에이와 굳은 악수를 나눈 저우 총리는 1976년 1월에 사망한 까닭에 아쉽게도 같은 시대를 살지 못했다.

내 전문 분야는 중국 근현대사, 특히 정치외교사이다. 내가 중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철들 무렵부터 만주사변에서 일중전쟁에 이르기까지 징병으로 중국에 세 번 출정했던 할아버지(1904~1996)에게서 중국이며 전쟁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이웃에는 중국이라는 대국이 있고, 일본은 그런 중국과 전쟁을 벌였으며 친근한 존재인 할아버지도 전쟁에 관련되어 있었다.....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졌나, 애초에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 그런 막연한 의문에서 중국과 그 근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다.

내가 중국을 처음 방문한 건 1998년, 대학 4학년 5월이었다. 목적지는 베이징.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 출신으로 당시 재직하던 대학에서 교양과목인 역사학을 가르치던 미즈노 아키라(중국명 리밍, 1926~2016) 선생님이 데려가 주셨다(미즈노 선생님은 1학년 때 세미나 담임 선생님이셨다). 장작림, 장학량 정권을 연구하셨던 분인데, 국공내전 끝에 국민당과 함께 타이완으로 건너갔다가, 일본으로 유학, 일본인 여성과 결혼하여 일본 국적을 취득하셨다. 당시 이미 연세가 70세가 더 되셨는데, 선생님과 함께한 덕분에 그해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청나라의 별궁 이허위안(頤和園)의 일각, 북동쪽 모퉁이에 있는 지칭취안(清軒)에 묵을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첫 중국 방문에



청조 말기에 권세를 자랑했던 서태후가

애용한 이허위안에서(1998년)

왼쪽이 필자, 오른쪽이 미즈노 아키라 선생

이허위안에서 목을 수 있었던 건 무척 행운이었다.

마침내 베이징에 유학할 수 있게 된 건 7년 후인 2005년 8월이었다. 중국 정부 장학금을 받아 유학한 지 2년 반 동안 청사 연구소가 있는 중국인민대학에 고급 연수생으로 재학하면서 근대 중국의 해외 영사 설치 과정을 주제로 한 박사 논문 준비를 진행했다. 대학원 박사과정을 만기로 퇴학하고 나서 유학한 지 벌써 29살이 되어서 유학지에서 교류한 중국 대학생들은 10살 정도 연하인 '개혁 개방'으로 인한 고도 경제 성장 속에서 자란 '80년대생' 젊은이들이었다(첫 1년은 역시 10살 연하의 한국인과 유학생 기숙사에서 룸메이트가 되었다). 일본에서는 박사과정까지 오가키의 본가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본가를 떠나서 오랫동안 생활한 것은 베이징이 처음이었다. 나중에 베이징을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이다.

베이징 올림픽이 시작되기 반년 전인 2008년 2월에 유학을 마치고 일본에 귀국한 나는 첫 번째 고향인 기후현에 있는 현립 고등학교에서 지리 역사과 교원(임시직)으로 2년간 근무한 뒤 일본 학술진흥회(학진)의 특별연구원(PD)으로 채용되어 소속 대학이 자리한 도쿄로 왔다. 2012년부터는 현재 소속된 아시아대학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그대로 15년 가까이 도쿄에 살고 있다.

유학을 마치고 나서도 학회 참가나 사료 조사 등으로 거의 매년 베이징을 방문하고 있는데, 연구 대상으로도 베이징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학진 특별연구원을 마치고 아시아대학에 취직하기 직전인 2월 말, 고등학교 시절의 은사인 가나사키 구니오 선생님(「현대사회」를 가르치신 지리 선생님)으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내 조부가 전전에 베이징에서 『순천시보』라는 신문사에서 일했던 것 같은데, 자네가 중국 근대사 연구를 하고 있으니 조부에 대해 알아봐 주지 않겠나」라는 부탁을 받았다. 『순천시보』는 1901~30년에 일본인이 베이징에서 경영하던 중국어 신문으로(베이징은 과거 순천부라고 불렀다), 선생님의 조부님은 가나사키 스구루(金崎賢, 1878~1962)라는 분인데 이 신문의 주필을 맡고 있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흔히 있는 대륙에서 온 '인양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지만, 조사해 보니 『순천시보』의 마지막 주필(1919~1930)을 맡은 것 외에도 그 후에는 전전 만주의 대표적인 일본어 신문인 『만주일보』(훗날 『만주일일보』)의 주필과 논설 위원장도 맡는 등 전쟁 전 일중 미디어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순천시보』의 주필로 베이징에 가기 전에는 일본에서 『요미우리신문』의 편집장과 주필도 맡았으며, 1930년대부터 40년대 전반까지 일본에서 발행되던 각종 언론지에 중국 문제를 중심으로 다수의 논설을 발표했던 언론인이기도 했다.

가나사키 스구루는 일본 패전 후인 1947년에 귀국하였는데, 고향은 후쿠이현이었으나, 동생이 살고 있던 기후현 오가키시에 자리를 잡았고 1962년에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장남 아키라는 같은 시 중학교에서 미술 교사가 되었고(아버지가 같은 중학교에서 그분에게 미술을 배웠다는 걸 6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졸업 앨범을 보고 알게 되었다), 손자 구니오는 오가키시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릿쿄대학을 나와 고향인 기후현의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고, 나는 그 선생님에게서 사회를 배운 것이다.

가나사키 스구루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을 무렵, 같은 세대로 중국 근현대사를 연구하는 세키

도모히데(현재 쓰다주쿠대학 준교수)에게 가나사키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가나사키도 중요하지만 『순천시보』 자체도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들어서, 곧 그와 함께 '『순천시보』 모임'이라는 연구회를 시작하여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모임 멤버들의 협력을 얻어 2017년에는 『『순천시보』 논설·사설목록』(아오야마·세키 엮음, 도요분코)을 편집·출판하였고, 현재는 논문집 간행을 준비하고 있다(이상, 줄고 「일본에서의 중국연구의 인연과 기원: 『순천시보』와 가나사키 스구루」 『중국연구월보』 2016년 1월호 <https://spc.jst.go.jp/cad/literatures/12601> 도 참조).

2023년 가을, 중국 근세·근대사를 연구하는 호리치 아키라(기타큐슈시립대학 교수)가 중심이 되어 베이징사연구회가 만들어졌다. 호리치 씨는 나보다 먼저 베이징의 중국인민대학에 고급진수생(高級進修生)으로 유학한 경험이 있으며, 2023년 여름에 『청나라 시기 베이징의 수도사회: 식량, 화재, 치안』(규슈대학출판회)을 출간했다. 그때까지 일본에 만주, 상하이, 톈진 등의 도시사 연구회는 있었지만, 베이징사 연구회는 없었다(꽤 오래전에는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찾지 못했다). 한때 베이징에 유학하여 제 2의 고향이라고 불렀고, 베이징과 인연이 있는 『순천시보』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해서 나도 참가하기로 했다.

이 연구회의 제 1회 모임은 2023년 10월 28일 도쿄대학 혼고 캠퍼스에서 열렸고, 그곳에서 이마이 사다오 씨를 만났다. 이마이는 전시 일본의 대중국 정책, 특히 '평화 공작'에도 관여한 육군 소장 이마이 다케오의 아들로 순천시보의 모임에도 창립 초기부터 참여하고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영향으로 대면으로는 한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오랜만의 재회였다. 그러나 이듬해 2월, 갑자기 부고를 접했다.

이마이 씨와 친분이 있으며, 『중국전문기자의 일중관계사: 오타 우노스케를 중심으로』(호세이대학 출판국, 2025년)을 출판한 시마다 다이스케 씨(도요문고 장려연구원의 권유로 2024년 5월에 이마이 씨의 성묘를 하게 되어 나도 참가했다. 묘소는 다마 영원에 있는데, 그때 우연히도 『순천시보』의 초기 주필이었던 이치미야 후사지로(一宮房治郎, 1884~1948)의 묘를 찾아 명함첩에 자세한 내용을 적은 명함을 넣어 두었다. 그 뒤로 반쯤 잊고 있었는데, 1년 가까이 지난 올해(2025년) 3월 손자인 이치미야 아야히코(나고야대학 명예교수)로부터 메일로 연락을 받아 얼마 전 만날 수 있었다.

이치미야 후사지로는 일본 동아동문회가 중국에 설치한 동아동문서원 출신으로 졸업 후에는 『아사히신문』 기자를 거쳐 베이징의 『순천시보』, 선양의 『성경시보』의 주필이 되었고, 후에 중의원 의원, 해군 정무차관 등을 역임한 이른바 '미디어 의원' 중 한 명으로, 종전 후 동아동문회 해산 당시 대표이사이기도 했다. 이치미야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없고, 『순천시보』, 『성경시보』, 동아동문회와의 관계 등도 포함하여 중국 근현대사, 일중관계사와의 관계에서도 향후 조사를 진행해보고 싶다.

앞서 언급한, 2016년에 쓴 칼럼의 결론에서 나는 “전전기에 중국 대륙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일본에는 전후 7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단순한 개인사에 그치지 않고 중국과 일중관계에 관련된

중요한 역사 연구의 씨앗이 무수히 많이 남아 있다”고 적었다. 평범한 서민의 한 사람인 나의 조부는 징집되어 병사로서 중국에 건너갔고, 나도 평범한 유학생으로 중국에 건너갔지만, 많은 은사와 연구 동료들과의 만남으로, 중국 근현대사, 일중관계사 연구를 심화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 이러한 다양한 기묘한 인연들이 기회가 되어 역사 연구의 폭과 깊이가 생겨나간다는 것을, 전후 80년이 되는 올해 새삼 느끼고 있다.

■아오야마 하루토시(青山治世)

1976년 기후현 오가키시 출생. 1999년 아이치학원대학 문학부 역사학과 졸업. 2004년 동 대학원 문학연구과 역사학 전공 박사 후기과정 만기 퇴학. 박사(문학). 2008년부터 기후현의 현립 고등학교에서 2년간 강사로 근무한 뒤, 2010년에 일본 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PD), 2012년에 아시아대학 국제관계학부 국제관계학과 전임강사가 되었고, 2016년부터 준교수. 전문은 중국 근현대사, 동아시아 국제관계사, 일중관계사. 주요 저서로는 『근대 중국의 재외 영사와 아시아』 나고야대학출판회, 2014년, 『사절 일기 시대: 청말의 중국과 외교』 나고야대학출판회, 2014년(공저), 『동아시아 국가와 근대 세계』 <지금을 알고, 현대를 생각하는 야마카와 역사 강좌> 야마카와출판사, 2025년(공저) 등이 있다.